

코리안아트 소사이어티, 버크 컬렉션 관람 행사

# 한국미술품 전문가 15명 참가

## 한국고미술 미공개작품 감상

코리안아트소사이어티(관장: 로버트 텔리)가 주관한 연례 버크컬렉션 관람행사를 위해 미국내 주요 한국미술품 담당 큐레이터들이 뉴욕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뉴욕, 보스톤, 매사추세츠등지에서 온 이들 한국미술품 전문가들은 11일(금) 로버트 텔리 KAS 관장과 더불어 공개되지 않은 귀중한 한국고미술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버크컬렉션을 직접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처럼 미국내 한국미술품 전문가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있는 일로서 의미가 큰 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버크컬렉션 관람에는 제인 포탈(보스톤미술관 아시안미술부 회장), 수잔 빈(매사추세츠 소재 피바디 에섹스 미술관 아시안미술품 담당 큐레이터), 우현수(필라델피아 미술관 한국미술 담당 큐레이터), 캐터린 풀(뉴욕 미술관 아시안미술품



연례 버크컬렉션 관람행사를 위해 미국내 주요 한국미술품 담당 큐레이터들이 뉴욕에서 모여 공개되지 않은 한국고미술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담당 큐레이터), 그리고 알리슨 톨만(저패니즈 아트 소사이어티 명예회장)을 포함, 약 15명의 한국미술품 전문가들이 참가했다.

한편 오는 17일 뉴욕크리스트는 한국미술 경매를 한다. 이날 경매에는 한국미술 박수근(1914~65)의 그림

'세 여인' (1961)을 비롯해 김차섭, 강익중씨 등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이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크리스티의 아시안미술 주간에 열리는 경매에 한국미술품은 총 43점이 나온다.